

# 위령의 날 [둘째미사]

2008.11.02

시편 116(114-115), 5-6; 10-11, 15와 16ㄱ-ㄴ(© 9)

손상오 신부 작곡



(후렴) 산 - 이 - 들 - 의 땅 - 에 - 서 나 는 주 님 앞 에 서 걸 어 가 리 라



1.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시 며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 는 분  
2. 내가 모진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되뇌면서 도 나는 믿었 노 - 라  
3.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 이 주님의 눈에는 소중한 도 - 다



주님은 소박한 이들을 지켜 주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 노 라  
내가 질겁하여 말하였도 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 쟁 이  
아, 주님, 저는 정녕 주님의 종 주님께서 저의 사슬을 풀어 주셨나 이 다

*D.C.*